

전통시장 절반이 아크릴 지붕... 대형화재 우려

가연성 아크릴 아케이드 '수두룩' 경인고속도로 화재 방음터널 유사 광주 13곳·전남 63곳...55% 차지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 대안"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의 아치형 비가림 시설(아케이드)이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때 '불쏘시개'로 지목된 아크릴 소재 방음벽과 유사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아크릴 소재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이 광주·전남 등록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우려된다.

8일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양 사·도지역 전통시장 총 137곳 중 55.4%(76곳)가 아크릴 소재의 아케이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광주는 24개 전통시장 중 13곳, 전남은 113개 전통시장 중 63곳이 아케이드 지붕이 설치됐다. 전체 전통시장의 55.4%가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셈이다.

아케이드가 설치된 광주지역 전통시장은 대인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 남광주시장, 양동시장, 양동복개상시장, 양동수산시장, 양동닭전길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경영로시장,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등이다.



광주·전남 전통시장 내 천장이 가연성 플라스틱 아케이드로 설치되어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8일 광주시의 한 전통시장 천장 모습.

전남에선 폴리카보네이트(PC) 28곳, 아크릴(PMMA) 2곳, 테프론(PTFE·준불연) 16곳, 플루오르화비닐수지(PVF·방염2급) 8곳, 조립식 판넬 3곳, 천막 6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목포 7곳, 여수 11곳, 순천 4곳, 나주 5곳, 광양 3곳, 담양 1곳, 보성 5곳, 해남 4곳, 영암 4곳, 영광 2곳, 화순 1곳, 무안 2곳, 고흥 2곳, 함평 3곳, 장흥 4곳, 완도 2곳, 신안 1곳, 진도 2곳에 있다.

도 소방본부는 아케이드가 설치된 63개 전통시장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아크릴, 천막 등이 설치된 곳은 8곳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역시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라는 점에서 교체가 시급한 실

정이다. 아케이드는 햇빛 투과율이 높은 데 비해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전통시장에 자주 사용하곤 한다. 재질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유사한데다 플라스틱 계열의 가연성 재질로 화재에 취약하다.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등으로 화재에 유독 취약한 탓에 자칫 아크릴 소재 아케이드가 화재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남도는 '2023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10개 시·군, 18개 시장에 100억5300만원을 들여 아케이드를 보수·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화재 취약 재질인 아케이드를 화재에 강한 난연등급 이상의 재료로 교체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로 운영하겠다"며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화재 알람 설비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보이는 소화기'도 강화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도 "매년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겨울에는 전통시장 집중 점검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교육청 'AI교육원'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활용성 높고 미래지향적 이미지 전국 최초의 AI체험 교육 플랫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AI교육원(가칭)' 신축 설계 공모에서 '㈜건축사사무소에스페이스(대표 박성환)' 작품을 당선작(조감도)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설계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했다.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올해 1월11일 응모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4개의 작품이 제출됐고 이 중 '㈜건축사사무소에스파

스'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당선작은 시교육청이 요구한 AI교육원의 방향을 잘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방문자센터를 중심으로 공모 지침서상 요구하는 '전시·체험·교육·연구'라는 다양한 기능을 증별로 충실하게 반영해 적절한 공간을 계획했다. AI교육원 내 외부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해 각각의 외부교육 및 체험공간을 배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한 점도 주목받았다. 기타 입상작으로는 '㈜브리드건축사사무소', '㈜지앤유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설계 공모당선업체 '㈜건축사사무소에스페이스'에는 13억여 원의 본 용역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기타 입상업체에는 3000~4000만원의 설계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광주AI교육원(가칭)'은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원하는 인공지능 시대 감성적 창조 인재 양성을 위한 AI 체험 교육·연구 플랫폼이다. 연면적 9451㎡ 규모로 총 49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1월 개원 예정이다.

윤정일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과장은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개원



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

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AI교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람 기자



최고집

최고집은 단체석과 룸을 완비하고 있어 가족모임, 단체회식 등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1등급 돼지고기와 신선야채를 사용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분위기에서 맛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최고집.



화정동 힐스테이트3단지 정문에서 도보5분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160번길 12-1

예약문의 010 4921 2902

모든 모임은 최고집에서 품격있게 준비하세요!



광주 유일 생대패구이전골 (무카타) 최초 런칭!

최상급 국내산 돼지고기 생대패삼겹 구이와 생대패구이전골 전문점 최고집

생대패구이전골 (무카타)

무-돼지고기, 카타-그릴 이라는 뜻의 태국요리. 무양까울리, 무카타까울리 등으로 불리우며 한국식 비베큐가 태국 현지화 된 음식으로 인기만점. 육수에 다양한 해물과 야채 등을 곁들여 고기구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웰빙요리. 최고집만의 특제소스로 차별화 된 맛을 선사합니다.

